

油價는 산유국과 大西洋이 결정하는가?

최근 세계 주요산유국 및 산유지역 대표 16명이 런던 금융가에 모여 原油가격 인상방안을 논의하였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6개국과 非 OPEC 7개국 및 美國·캐나다 3개국 대표가 모인 합동회의였다. 이것은 世界石油産業史上 原油가격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이번 합동회의에 美國 및 영국정부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美國정부는 同國 최대의 산유주인 텍사스 및 알라스카주 石油정책관계자의 참석을 묵인하였으며, 美國정부도 자국의 수도 한가운데서 이같은 국제회의 개최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싶다. 소련이나 中國 등 石油가무를 인상시켜 外貨 수입을 증대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非 OPEC산유국이 이러한 성격의 회의에 참가하여 협조 인상의 분위기를 돋우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石油에 관한 한 상품가격은 자유거래, 즉, 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自由主義經濟의 행동원리로 인정하고 있는 美國정부가 2대 產油州의 회의 참가를 묵과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美國정부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原油價의 대폭 하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유주의경제 재건을 위해 國際石油 카르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原油가격의 조정이라는 국제경제, 국제정치의 중요한 무대에 새롭게 소련·中國 양대국이 참가한 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전략상의 배려를 한 것인가.

치열해지는 石油情報 戰爭

뉴욕 石油先物시장은 合同會議(역자주: OPEC·非 OPEC회의)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 협조 감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보다는 「팔자」가 강하게 나타나 근일물(3월 인도분) 원유선물가격이 배럴당 40센트 下落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會議에서 바로 非 OPEC그룹이 5% 減産案을 제시하고 OPEC側도 이에 동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투기소스의 예측이 적중하지 못한데 대한 반동인 것이다.

이같은 先物市場의 판단은 너무 단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합동회의 성명은 ①OPEC가 설정하고 있는 배럴당 18달러基準 原油가격의 조기 실현을 지지하고 ②4~6月 시장대책을 공동으로 강화하는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는 두가지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③項은 非OPEC 각국이 어떤 형태이던 협조 감산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OPEC에 확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산유국들은 先物市場이나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을 살펴가면서 非OPEC 각국의 감산정책의 표명, 합동 석유상 회의의 개최 등 市場關係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차례차례 제시해 가는 형태로 상황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石油先物市場이 石油의 實物去來業者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업자, 상품거래업자 등의 대량 참가에 의해 투기성향이 짙어지고 정보조작으로 시장이 동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OPEC·非OPEC의 가격인상 협조도 이러한 『情報戰爭』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하는 戰術的 사고가 강해지고 있다.

산유국 회의도 춤추는 Dealing Screen(市場 去來의 컴퓨터 표시)을 보아가면서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石油市場은 불투명한 것이다. 정말로 사후

다가 얼마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가, 소련 및 멕시코가 증산하고 있는 것인가, 감산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의 진상은 알기 어렵다, 石油市場은 정보전쟁의 장소이며 뉴욕, 런던 등 先物市場이 증대되고 있는 장소에 정보가 집중되는 과점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OPEC이 지난해 11月末 총회에서 20% 협조 감산, 이라크의 국별 생산협정 복귀에 합의하기 전에 美國系 國際石油資本은 대량의 저가 原油를 구입하였다. 반대로 유수의 석유수입국인 日本 石油業界는 당시 저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인지 그다지 구매량을 늘리지 않았다. 油價가 반등하기 시작한 昨年 12월말 日本 民間 原油재고가 감소한 통계실적이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市場動向의 인식격차는 매우 크다. 산유국의 생산조정이 OPEC의 틀을 넘어서서 global해져 가고, 한편 石油去來情報의 수집, 가공, 발신이 뉴욕·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Channel에 집중되는 구조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새로운 문제이다.

自由化로 情報力 강화를

금년 原油가격은 가격형성 메카니즘의 변화 속에서 상하변동을 거듭해 가면서 OPEC 목표인 배럴당 18달러 체제회복을 향해 움직여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

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油價안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특히 日本·동아시아 석유수입권의 호황이 低油價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油價의 회복도 소비국의 의향이 반영되어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점에서 지난 주 인도네시아 國營 石油會社가 전력업체에 대해 저유황원유(Minas) 수출가격을 일제에 배럴당 3달러 가까이 상승시켜 2월부터 배럴당 18달러 基準價格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온 것은 쇼크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石油절약을 잇고 값싼 石油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켰다는 배경과 石油市場의 정보력 부족이 작용한 것이다.

금주초 東京에서 열린 「태평양 에너지協力會議」(通産·外務 양자공동개최)에서 韓國의 李鳳瑞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事業 안정화를 위한 적당한 가격변동대 형성을 위해 비축원유의 방출과 구입증대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방법론상의 난점도 있지만 석유수입국도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욕으로 평가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는 石油市場의 가일층 自由化를 통한 質·量 양면에서의 정보력의 강화가 선결문제라는 점은 틀림없다 하겠다. □〈日本經濟新聞〉

□ 해외단신 □

油價, 당분간 15\$/B 수준

中東원유는 향후 2개월 정도는 15\$/B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2/4분기중 OPEC의 생산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제로 반전될 것이라고 日本의 업계전문가들이 밝혔다.

일부 석유거래업자들은 OPEC의 작년 11월 총회 이후 油價가 4\$/B 상승하였으나, 북반구의 겨울수요가 끝나면 2/4분기중 생산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2\$/B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日本의 석유사 간부인 마사루氏는 OPEC이 2/4분기중에도 현재와 같은 1,900만 b/d수준을 생산할 경우 세계시장에서는 50~100만 b/d의 재고가 증가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油價는 13~14\$/B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